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 탐색 -전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Factors That Inhibit and Activate Community-Based Child Care Community Activities
-Focusing on Jeonbuk Area Cases-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강의초빙교수 황미진***

Jeonbuk Institute
Research Fellow Lee, Juyeon
Dept. of Child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 Professor Hwang, Mi-j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대상의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동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돌봄공동체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세부주제, 하위범위와 상위범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동의 저해요인 상위범주로는 돌봄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반 환경 취약과 돌봄공동체의 동력 부족이 도출되었다. 반면,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 상위범주로는 돌봄공동체 기반 환경 안정화와 돌봄공동체 내부 역량 강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아동돌봄 공백의 대안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의 안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돌봄공동체 활동 저해요인, 돌봄공동체 활성화 요인,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revitalize the community-based child care community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re hindering and activating the operation and use of this community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an in-depth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f operators of child care communities in Jeollabuk-do and users of caring communities. Detailed themes, sub-ranges and upper ranges were determined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he basic environmental weakness of the caring community and its lack of power are the things hindering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communities the most. On the other hand, the main activation factors for community-based child care community activities were the stabiliz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l capacity of the care communit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basic data for the saf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a community-based

*본 논문은 이주연·조경옥·최지훈(2020)의 기본연구과제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개발 연구」를 일부 수정한 것임.

**주저자: 이주연(tulee0221@think.kr), <https://orcid.org/0000-0002-7186-5496>

***교신저자: 황미진(jinsdestiny@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2-7432-4337>

child care community, which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the child care gap due to the prolonged effects of COVID-19.

Key Words: Community-based child care community, Obstacles to caring community activities, Factors that activate the care community,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가족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현안 이슈이기도 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등학교의 휴교가 지속되면서 자녀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인 2명 중 1명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연합뉴스, 2020)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우삼제, 2011).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은 영유아기관보다 빨라 맞벌이 가구 자녀들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초등 저학년생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돌봄 없이 주당 9시간을 보내고 있다(임혜정, 2017). 초등학교 시기는 생활습관과 학습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초등학교 시기의 교육적 경험의 차이는 교육 격차 및 사회적 양극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오범호, 2009). 그리고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모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끼치는데, M 자형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한국은행, 2018)은 초등학교 입학시기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지 못해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중앙 각 부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매년 돌봄정책을 지원 확대 및 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대표적인 아동돌봄정책으로(이종근, 2021; 정영모, 2019) 최근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부터 12세 아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공적 아동돌봄정책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그 지원이 확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한 학교에 1-2

개 교실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에서의 운영시간이 부모의 퇴근 시간 전으로 제한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의 기능이 취약하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맞벌이, 다자녀 가구 중심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에서 보편적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은정 외, 2019). 위와 같은 공적 아동돌봄정책의 한계로 아동돌봄 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처별 돌봄 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복되며 부처간 상이한 전달체계와 연계성 부재로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박윤혜·백일순, 20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기간에 자녀돌봄의 공백과 공백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였다. 또한 중앙의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아동돌봄 정책추진으로 각기 상이한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을 반영하고 수요자마다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하는데 제한적인 한계를 지닌다(김은정 외, 2019).

이에 중앙 주도 공급자 중심의 공적 아동돌봄정책이 놓치고 있는 다각적인 돌봄 수요와 틈새 돌봄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 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미영, 2017; 이연화, 2017).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는 이상의 문제점 및 공적 아동돌봄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대두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주민 주도의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 주도의 아동돌봄공동체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경기도, 2020)와 전북 익산시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익산시, 2021), 제주도의 수놓음돌봄공동체 등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과 관련한 선행연구(차영란, 2014)에서도 가족돌봄기능 수행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양육자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주요 특성은 상호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리 공간과 지리적 근접성, 돌봄이라는

특정가치를 공유한다는 점, 공동체 내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협업과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조직·단체의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 지역사회 내 주민과 단체, 조직 등의 자발적인 참여, 돌봄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서로 나눈다는 점, 그리고 돌봄공동체 형성의 기본단위는 가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손문금, 2012).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효과는 아동 개인의 건강한 발달·안전보호에서부터 부모 및 부부 등 가족관계 향상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는 가족 중심의 자녀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과 이웃 및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정서·문화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아동돌봄 문화와 정서가 확산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네트워크의 확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기대효과까지 바라보고 있다(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2021).

이에 아동의 공적 돌봄정책의 대안책으로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아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에 부모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은 더욱 심화되었고, 시설 중심의 공적 돌봄기관의 휴원과 휴교에 따른 공적 돌봄체계 마비로 아동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보다 확대되어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는 어느 때보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부처별 공적 초등돌봄정책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이종근, 2021) 반면,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돌봄공동체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성격 상 지역성, 유대감, 상호작용, 공익성의 공동체 구성요소(고승희 외, 2019)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속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돌봄공동체 운영 활동의 저해요인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대상의 기존 공적 아동돌봄정책의 한계 보완과 채워지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 및 틈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돌봄과 공동체 운영·관리를 하는 운영자와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인 이용자 관점에서 돌봄공동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동의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동의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개념과 유형

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개념

먼저 돌봄이란 관계 안에서 상대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진미정, 2018)으로, 영유아, (취약)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의 생명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Daly, 2002)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은 의식주 생활, 건강 등을 보살피는 육체적 행동과 더불어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며(손문금, 2012; 홍세영, 2011),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Sipila & Kroger, 2004)로 정의된다. 아동 돌봄이란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생명과 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의식주 생활·건강·교육·보호 이외 정서적·정신적 지원을 함께 돌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기반의 공동체란 지역성, 유대감, 상호작용, 공익성 등의 구성요인을 갖고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조직적 형태이다(고승희 외, 2019). 지역기반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정서적 동료의식 중에서 특히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이다(홍순구·한세익·이현미, 2014).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는 지역사회가 아동돌봄을 매개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가족), 주민 또는 이웃간의 상호 돌봄과 돌봄 지원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돌봄 문제에 대해 고민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적 돌봄 정책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돌봄 틈새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지역 중심의 돌봄 공급 한계 등을 보완하며 다양한 형태의 돌봄 문제에 대해 부모·가족·이웃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돌봄 관련 자원을 나누고, 지역 내 또 다른 돌봄 자조모임·단체·기관들과 연계망을 구축하는 활동(손문금, 2012) 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돌봄공동체의 개념은 자녀돌봄품앗이(이전명칭: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과 유사개념으로 자녀돌봄품앗이와 공동육아가 미취학전 아동 중심의 돌봄이라면 아동돌봄공동체는 취학한 아동(초등학생)까지 포함하는 돌봄이라 볼 수 있다. 자녀돌봄 품앗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간에 서로의 품을 나누어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자생적 모임으로써(여성가족부, 2011),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번갈아 도와주는 품앗이를 통해 일손을 덜었던 것처럼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활동(여성가족부, 2021)을 말한다. 공동육

아란 아이의 부모,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우는 것(정병호, 1994, 여성가족부, 2011 '재인용')으로써 즉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여성가족부, 2021).

2)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현황은 공식적으로 집계·관리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돌봄공동체 운영 예산지급 및 관리·결과보호를 해야 할 주체를 고려해 각 지자체 및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 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 발굴 및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아동돌봄공동체가 있다. 경기도는 지역공동체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이 '함께돌봄(2020)'을 실천함으로써 가족의 약화된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도 지역이 함께 아이키우는 문화를 만들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부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경기도와 익산시 모두 3년 단위이다.

둘째, 지역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지원과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교육청 주도 돌봄공동체 유형이 있다. 이 돌봄 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의 방과 후 마을학교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마을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과후마을학교(전라북도교육청, 2020)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태적 관점의 지역교육문화 만들기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형 등을 1년 단위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전라남도교육청, 2021)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운영하는 도 지정 마을학교, 지역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

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군 마을학교, 그리고 예비마을학교 성격의 씨앗동아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2020)가 2020년부터 추진하는 0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 대상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다. 세부 유형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조성,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부모 및 지역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이 있다. 돌봄공동체의 역할은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며, 육아기 부모세대의 자조모임,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모임,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마을 지역 주민으로 돌봄 주체자 5인 이상 또는 돌봄 아동 8인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다. 돌봄시간은 지역별·구성원 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과 주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활동 장소는 공동육아나눔터, 마을 카페, 마을 농장, 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공간, 체험학습장 등 지역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는 2021년 현재 12개 시·군·구, 총 43개가 운영 중이다.

2.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요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지자체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실시된 (초등)아동대상 돌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로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및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활동가들은 공동체 운영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진의 소진, 학부모와 돌봄 강사의 전문성, 돌봄 교사의 역할한계,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의 비전 공유 어려움 등을 해결 과제(김위정·김성식·이은정, 2016) 지적했다. 공동육아

<표 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유형

주체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 발굴 및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경기도의 '함께돌봄', 익산시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지원과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실시 전라북도의 '방과후 마을학교(프로그램형, 돌봄형)', 전라남도의 '마을학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부녀회, 주민자치회, 경로회, 마을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형,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0에서 만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유형: 품앗이형, 마을 공동체형, 주민 경제조직형

형식의 돌봄공동체 참여자 대상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구를 한 장수정, 송다영과 백경흔(2019)는 공동체 구성원이 전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정적 어려움, 돌봄공동체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보호와 지원 장치 부재로 인한 돌봄 공간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 돌봄 터전인 돌봄 공간의 불안정성 등으로 돌봄공동체의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란(2008) 연구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공동체적 삶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통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시 구성원간의 내 아이 중심의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이 어려워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아동 입장에서는 또래친구들과의 갈등과 서로간의 비교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우민정·주봉관, 2011) 공동체 내 부모들간의 사고 차이와 서로에 대한 희생 요구, 공격 만남에서 사적 만남으로 변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성란, 2010). 그리고 돌봄공동체의 한 형태인 품앗이활동을 함께할 동료들 찾기가 어렵고 돌봄 활동 장소를 마련하기도 어려우며(차성란, 2010),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 의견충돌, 서로 지나친 관심과 참견, 세대차이, 무반응 등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의 문제적 경험을 제시했다(이아람, 2015). 협동조합형 돌봄공동체 관련 연구(유해미·김문정, 2013)에서는 운영의 재정부족, 돌봄공동체 운영 지침의 미비, 신입조합원 교육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으며 돌봄을 위한 영구 터전(돌봄 공간) 마련과 공동체 구성원 간 공동육아 및 돌봄에 대한 이념과 철학 공유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의 운영·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돌봄공동체 운영 인력의 부족, 공동체 구성원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돌봄 터전인 돌봄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마련된 돌봄공간의 불안정성,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견충돌과 세대차이, 갈등발생 문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비전 공유의 시급함 등이 지적되었다.

3.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이에 최근 지역 연구원 차원에서 실시한 지역별 아동돌봄공동체 관련 연구들에서 도출된 아동돌봄공동체의 운영 및 이용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 보았다.

광주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한 이미영(2017)은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도의 아동돌봄공동체의 발굴과 홍보가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아동돌봄공동체 구축을 통한 아동돌봄공동체간 연대와 협력 및 아동돌봄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인 아동돌봄중간지원센터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경북 마을기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김수연, 2019)에서는 방과 후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돌봄공동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돌봄활동가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봄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마을돌봄지원센터의 설립, 공유 공간 마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대응 및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마을 돌봄에 대한 운영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미정, 백선정과 남승연(2018)는 마을중심 보육·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추진 체계 간 협업과 연계를 도모하며 시범사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지훈(2020)은 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 구성과 정책방향 연구에서 지역 돌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활동의 정책지원, 돌봄활동 수행의 공간구축 지원, 그리고 돌봄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한 고승희 외(2019)는 공동체 기반의 돌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민관협력의 활성화, 두 번째는 돌봄 당사자와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마지막 세 번째로 돌봄서비스의 핵심주체로서 정부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그리고 공동체 돌봄체계의 제도화와 정책지원 방안으로써 충남의 공동체 돌봄지원 조례의 제정, 돌봄공동체 활동기반인 공간마련, 돌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교육부 주체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조윤정 외, 2016)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형성을 위한 돌봄공간 제공, 중간지원조직 운영, 풀뿌리조직 양성 등이 필요하고 이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의 운영과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봄공간 마련 및 돌봄공간 이용의 지속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돌봄활동가 발굴과 역량 강화, 돌봄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중심으로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이용자(돌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부모) 대상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여성가족부가 공동체 회복과 지역의 돌봄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북지역의 아동돌봄공동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소개 받았고, 이후 돌봄공동체 운영자들의 협조로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대표자 및 활동가 등) 8명과 돌봄공동체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부모 8명 등 총 16명이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었고, 자료수집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심층면접과 전화조사를 통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면접의 주요 질문들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 심층면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은 1:1 개별 면접을 기본으로 실시하였고, 각각 최소 5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시작 전에 본 조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공지하고,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참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실시하였다. 대면 심층면접은 본 연구원 회의실과 돌봄공동체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와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실시하였으며, 전화를 통한 심층면접은 돌봄공동체 운영자와 이용자의 전화 통화가 가능한 일정을 본 연구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이용자 대상 돌봄공동체 운영과 이용의 현황 및 돌봄공동체 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과 돌봄공동체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돌봄공동체의 운영 시작시점은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로 돌봄공동체 운영기간이 최장 15년부터 최소 6개월까지로 각기 다양하였고, 돌봄공동체 운영 및 돌봄 경험은 평균 3~5년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돌봄공동체 이용자는 8명 중 2명(시간제 근무)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에 근무하는 맞벌이였으며 이용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로 나타났다. 돌봄공동체 이용 경험기간은 적게는 1년에서 가장 길게는 7년까지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1~2년을 이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면접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연구에 참여한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운영시작시기	운영기간	돌봄공간	돌봄시간(서비스 내용)	이용 아동 현황, 연령
운-1	여	30대	2016년	5년	전세구입	• 학기중 13시~18시, 방학중 12시~18시 • 숙제/학습지도, 점심·간식 제공, 프로그램/체험활동	15명 내외 6세-초6
운-2	여	40대	2018년	3년	작은 도서관	• 학기중 13시-18시, 방학중 8:40-18시 • 숙제/학습지도, 점심/간식제공, 프로그램/체험활동	10명 초1-4
운-3	여	50대	2007년	15년	투룸 아파트 월 임대	• 주 5일 상시돌봄(14-16시) 야간 긴급돌봄(18-20시) • 주말 긴급돌봄(상황에 맞춰) • 숙제지도, 간식제공, 프로그램 활동 등	13명 초1-4
운-4	여	40대	2020년	3개월	아파트 관리실 내	• 주 5일(14-18시) • 숙제지도, 간식제공, 프로그램 활동 등	10명 초1-3
운-5	남	40대	2016년	5년	폐원학원 빈공간임대	• 평일, 13시-17시 • 건강체크, 숙제와 기초학습지도, 간식제공, 놀이활동	15명 초1-6
운-6	여	40대	2016년	5년	市 유휴 공간	• 학기 중 16-19시, 방학 중 9시-19시 • 숙제지도, 점심/간식, 프로그램/활동, 학습지원	13명 유치원-초6
운-7	여	40대	2020년	5개월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 학기 중 13-17시, 방학 중 11-17시 • 숙제지도, (음료)간식, 프로그램	8명 초1-4
운-8	여	40대	2015년	6년	지역경제 순환센터 내	• 9시-17시 • 산책, 체험활동, 돌봄, 급/간식 제공	25명 초등 5명, 유아 20명

〈표 3〉 연구에 참여한 아동돌봄공동체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맞벌이 유무	연령 (성별)	자녀 수	이용 기간	이용 자녀	돌봄시간	돌봄내용	공동체 인식경로
이-1	유	30대(여/母)	2명 초4 여 초1 여	1년	2명	13시~19시	점심/간식, 숙제지도, 프로그램(외부강사)	학교앞홍보(플래카드), 주위 지인
이-2	유	40대(여/母)	2명 초5 여, 초4 남	3년	2명	13시~18시	점심/간식, 숙제지도, 책읽기, 미술, 음악, 뮤지컬 등	지인을 통한 정보 습득
이-3	유	40대(여/母)	2명 초3 여, 초1 남	1년	2명	14시~18시	독서지도, 요리수업, 과학실험, 급간식 등	지인 소개
이-4	유	40대(여/母)	1명 초1 여	1년	1명	13시~17시	돌봄, 읽기지도, 미술, 과학	아이의 친구 엄마를 통해
이-5	유	30대(여/母)	1명 초2 남	1년	1명	14시~18시	방과후돌봄, 급/간식 등	지인 소개
이-6	유	40대(여/母)	2명 초2 남, 초4 남	4년	2명	13시~18시	점심/간식, 숙제지도, 학습지도, 프로그램과 활동 등	유치원 자녀 친구 학부모 소개
이-7	유	40대(남/父)	2명 초5 초2	7년	2명	13시~18시	숙제지도, 점심/간식, 자율활동 프로그램과 활동 등	공동육아 회원이 돌봄공동체까지 지원
이-8	유	40대(여/母)	2명 초6 여, 초4 여	2년	2명	13시~18시	점심/간식, 숙제지도, 문제풀이, 프로그램(외부강사)	학교앞 홍보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과 이용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활동 저해 요인과 돌봄공동체를 안정 정착 및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질적연구는 미리 설정한 연구가설이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보다 자료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대한 결론을 귀납적으로 밝히는 연구방법(김인지·이세인·이숙현, 2010)으로써 개입에 필요한 이슈들을 발견하는 것에 적합한 연구방법(권지성·정익중, 2014)이다. 따라서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과 이용 과정에서 운영자와 이용자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이슈를 정리하려는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많은 양의 자료덩어리에서 의미 있는 자료만 뽑아내 압축하는 과정으로 코딩, 주제도출, 범주를 생성하고, 지속적인 순환과 정교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이정빈, 2018). 본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이정빈(2018)이 제시하는 질적연구 진행과정으로 전사, 코딩(의미 찾기), 세부주제 도출, 범주의 위계화 과정을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에 대한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고 대면 면접일 경우 24시간 내에 현장스케치를 정리하여 돌봄공동체의 현장과 연구대상자들의 경험 및 의견을 생생하게 정리하였다. A4 250여장의 전사본을 만들었고 전사본을 연구자들이 수차례 정독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을 표시하며 중복여부를 검토하였다. 중복된 문장과 연구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문장에 대해 의미단위별로 분류해서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어 “아쉽다는 거는 아

무래도 조금 선생님이 혼자 계시고 아이들은 여러 명인데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몇 시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진술에 대해 “주 활동가의 과도한 역할”로 코딩하였다. 원자료 코딩이 끝난 후 연구주제에 맞게 세부주제를 분류하였으며 상호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묶어 각 주제들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 범주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초점을 두고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층위를 구성하였다. 세부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은 본문에 그대로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정교한 범주화를 위해 여러 번 코딩자료를 검토하면서 주제와 범주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 윤리 확보

본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 준거 중 증거자료의 수집과 동료연구자의 자문(김영천·정상원·조재성, 2019)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실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면담 녹음파일 및 전사지, 심층면접 현장일지 등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통화를 통하여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2명의 타당도 검증 과정과 확인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 윤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 저해 요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 저해 요인은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환경 취약과 돌봄공동체 운영의 동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표 4>와 같다.

1) 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 취약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환경의 취약 요인은 돌봄 공간 마련의 어려움, 돌봄공간의 불안정성, 돌봄공동체의 조직화 및 체계화의 부족, 그리고 돌봄공동체 운영에 대한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분류되었다.

① 돌봄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돌봄공간의 불안정성

공동체 운영자들은 돌봄 공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자녀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안정성·따뜻함·공간 사용의 지속성·운영비·학교와 집과의 접근성·교통의 편리성 등 다각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돌봄공간의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돌봄 장소는 돌아다니면서 했죠. 마을회관, 경로당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세 내고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하기도 하고..너무 옮겨다녀서 방학중에는 추우니까 교회에 있기도 하고 방학 중에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안되니까.. 교회에서 장소를 내 주었죠...방법대 밑에서도 했었죠.. 방법대에서는 제약이 많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빌려주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방법대에 책상을 놓으니까 방법대 분들이 소파를 치워야 해서 미안해서 저희가 월세주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방법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운-7)

당장 4월달부터 임대 30만원 짜리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 아직 찾지도 못했어요..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경로당은 있는데.. 아이들 돌봄공간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신경쓰고 공공기관의 그 많은 유휴공간을 맘껏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당장 4월 달이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운-5)

좀 아쉬운 점은 학교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 좋겠구요, 차로는 1-2분, 걸어서 가려면 좀 거리가 있긴 해요..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고 버스 2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이왕이면 학교 근처에 걸어서 5분 내로.... 횡단보도도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뒤에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거든요.. 겨울에는 워낙 춥다보니.. 건널 때 춥고...욕심만큼의 공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공간들을 시에서 군에서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이-5)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아쉽죠... 화장실은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활동하는 공간이고.. 아무래도 급/간식을 하다 보니 싱크대가 있긴 한데 작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구.. 바닥도 온돌로 되어 있었으면 하는데... (이-8)

② 돌봄공동체의 조직화 및 체계화 부족

돌봄공동체 초창기에는 대표와 구성원들간의 공동체 운영에 대한 방향, 서로의 역할 분담과 규칙, 가치관 등에 대한 체계화와 조직화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각이 서로 다른 공동체 회원들이 돌봄을 매개로 일정 공간에 만나 공동체를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간의 생각 정리와 합의, 각각의 역할과 업무 담당 및 조정 등 세세한 것에서부터 의견수렴, 논의, 협의, 갈등에 대한 방안 모색 등 공동체 운영의 조직화와 체계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돌봄공동체를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정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공동체 회원들간 각자의 역할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 인지... 이런 공동체 운영의 조직화와 체계화가 잘 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갈등도 생기고,, 대표는 대표대로,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운-7)

초창기에 제가 일도 잘 못하고 그 사람의 속내도 잘 볼 줄 몰라서... 일들을 누가 누가 담당하고 결정할 때도 힘들었어요.. 어떤 형태의 체계, 규칙, 조직의 체계를 잘 못해서 서로가 다 서운해 하기도 하고... 서로 맞춰가며 조율해가면 체계를 구성해가고 하는 것이 힘들더라구요. (운-6)

이름만 공동체이지 단독으로 운영하다보니 조직의 체계를 잡지 못하는게 아쉽고 힘들면서 인력과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또 맞벌이와 한부모가 많다보니..다들 힘들어해서 회비도 못 걷고.. 제 나름대로 매번 달려보지만 인력도 모자라고. (운-5)

③ 돌봄공동체 운영 인적자원 부족

최근 돌봄공동체 내 회원(부모)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임에 따라 돌봄을 함께 제공하기 보다는 돌봄 지원을 받는 수혜

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외에 돌봄만을 전담하는 돌봄 전담자와 그 돌봄 전담자를 보조해 주는 보조교사를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한 공간에서 다수 아이들의 돌봄 자체가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부모(회원)들이 알고 있었고 특히 방학 기간 중에 오전 9시 경부터 간식과 점심 식사 챙기기, 그리고 간식과 점심시가 관련 정리하기, 아이들과 함께 여러 활동하기 등 돌봄 전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따라 전담교사의 과부하된 역할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 격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1인 다역을 하다보니 가끔 중요한 서류를 내려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가야할 때가 오면.. 어른이 있으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는데.. 아이들만 두고 갔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운-3)

저 혼자 행정하죠, 사업하죠, 간식주지, 자원봉사자들 관리하지, 엄마들 관리하지. 1인 다역을 하거든요.. 오늘은 문 닫고 왔어요... 다음주부터 열어드라고 엄마들이 성화를 해요.. 저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두려워요 사실.. 사실 지금 편해요.. 3년동안 쉬지않고 달려왔어요.. 저희는 아프면 안돼요.. 저희가 아파 문 닫으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운-8)

방학 중이라도.. 몇 시간 정도만이라도.. 원래 유치원도 선생님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고충이 있진 않을까 해요.. 힘든 부분이 결국엔 아이들이 힘든 거거든요.. (아-1)

2) 돌봄공동체의 동력 부족

아동돌봄공동체 활동 운영의 동력부족으로 구성원의 공동체성 부족과 아동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불안정성으로 분류되었다.

①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체성 부족

돌봄공동체 운영자(대표자 포함 활동가 등)들은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예전보다 부족하고 또 돌봄공동체 운영에 회원들이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자세가 높아지고 있음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돌봄공동체 운영자는 돌봄공동체 운영을 위해 공동체 운영에 대한 행정과 회계일을 하고, 재정적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모사업 계획서와 신청 및 면접을 보며, 공동체 내 아이들을 위해 점심식사 준비와 간식 준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과 감사 섭외 등 1인이 다역을 하고 있었다. 돌봄공동체 운영에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

성과 자발성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공동체 회원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이고 한부모가구 증가로 공동체 운영에 함께 참여함에 대한 상황과 여건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회원들 간에 공유·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회원들의 참여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해요.. 돌봄에 오는 아이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1)

요즘 젊은 엄마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품앗이 공동육아라 함은 서로 품을 받고 주고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돌봄받기만 하려 하지 또 줄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좀 힘들기도 한데.. 받은 만큼 희생해서 뭔가를 또 해주려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능 기부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은 자원활동가 비용이 있다던데...그래요.. 새로워요.. 조금.. (운-6)

돌봄에 대한 엄마들의 만족도는 아주 좋으나 공동체 대표자님 혼자서 이끌어가기에는 힘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엄마들도 워낙 바빠서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지 않는 상황도 그렇고.. 그런 점들이.. 많이.. 그렇죠... (아-2)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상황에서 돌봄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단 몇 명의 활동가들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요.. 엄마들이 돌봄을 할 수가 없어요..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의견만 주고 지지할 뿐이죠... (운-3)

공동체니까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옛날에 농촌지역에서 두레, 품앗이 하던 그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절대 특히 도시에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다시 해야하는 사람들도 두레, 품앗이 정신으로 해라.. 공간 운영과 월세 다 너네가 다 해라... 하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운영 안하고 사업체로 돌려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한데.. 아이들 누가 봐요... (운-8)

〈표 4〉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요인

범주	하위범주	세부주제
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 취약	돌봄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돌봄공간의 불안정성	• 안정된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의 어려움 • 안전성·지속성·학교와 집과의 접근성·교통 편리성 등이 갖춰진 돌봄공간 마련의 어려움
	돌봄공동체의 조직화 및 체계화 부족	• 돌봄공동체 초기운영의 방향·규칙·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체계화, 조직화의 어려움 • 구성원간의 생각 차이와 조정에 대한 시간과 노력 필요
	돌봄공동체 운영 인적자원 부족	• 돌봄공동체 구성원 전원 맞벌이로 돌봄제공자보다 돌봄수혜자가 다수 • 돌봄 전담 인력과 돌봄 보조인력 필요
돌봄 공동체의 동력 부족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체성 부족	• 돌봄공동체 구성원간 결속력 감소와 비자발적 참여 • 주 활동가의 과도한 업무와 역할부여(공간·프로그램 운영, 회계업무 등)
	프로그램 운영의 불안정성	• 재정적 운영난 및 재정 확보 어려움 • 공모사업 종료 후 다음 공모사업 선정전까지 돌봄과 프로그램 공백발생 • 공모사업 예산집행 시 회계정산 복잡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

② 프로그램 운영의 불안정성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등 돌봄 공간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간식 및 식사비 등 일정 수준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원들의 출자방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들이 시와 군 및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1년의 단위 혹은 3개월,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됨에 따라 돌봄활동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매번 재정 확보에 대한 불안과 지속적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추가로 운영자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공모사업 대부분이 주어진 예산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산요구를 따라 회계를 전문적으로 접하지 못한 공동체 회원들의 고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쉬운 점은 돌봄을 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따서 그 돈으로 프로그램도 돌리고 운영하는데 공모사업 기간에 속해 있지 않은 비는 달이 생겨요.. 교육청 공모사업은 12월 중순까지인데 이후 겨울방학인 12월 말, 1월부터 2월까지의 공모사업 기간도 아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프로그램도 돌리기 어려워서 돌봄을 안하거든요.. 저와 같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방학 동안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이게 해결이 안되니까 정말 아쉬워요.. (이-4)

교육청 입장도 알겠으나 12월 1월 2월 겨울방학 돌봄이 없다는 것이 힘들죠..일반적으로 교육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 기간이 3월부터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공동체도 그 기간에 맞춰서 돌봄을 하다보니.. 겨울방학에는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예요.. 돌봄공동체 선생님은 아이들 보내고 싶으면 보내라고는 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긴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지만.. (이-3)

회계 처리도 힘들고,,,이 이야기를 시에 이야기했죠.. 제가 아이들 보러 왔지.. 서류하러 온 건 아니나..불만을 이야기했죠.. 서류가 너무 많다.. 제가 교육청 것도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정산 보고만 하듯이 사진하고 물건 산거 다 사진 안 찍어도 믿고 넘어가셨어요..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여기는 사진부터 서류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서류와 회계 정리하고 다시 출근했다가 여기서 또 나머지 회계정리하고 퇴근도 사실 빨리 하지 못해요..회계며 행정이며 서류 정리 해야 하나까...어쩔 때는 주말까지 해야 해요. (운-6)

보통 그래요.. 돌봄하시는 분들이 회사다니신 것도 아니고, 다녀도 정산하지도 않고, 처음에 그런것만 잘 도와주면.. 보통 1시간정도 오텐을 해주긴 하는데 시청, 교육청에서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듣고 날리는 거예요, 오늘 가서 배우고 실제 할 때는 너무 어려운거죠, 담당 선생에게 오죽 막혀서 전화하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바쁘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운-1)

2.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 활성화 요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으로는 돌봄공동체 기반 환경의 안정화와 돌봄공동체 내부 역량강화로 나타났다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1) 돌봄공동체 기반환경의 안정화

① 물리적 기반 환경 지원

돌봄공동체 운영 주체자들은 지역 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가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나 돌봄공동체가 운영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반 조성이 뒷받침 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돌봄 공간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임대료와 공공요금의 기본 운영비의 지원과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 맞춤형 화장실, 간식과 식사제공을 위한 개수대(싱크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온돌식 마루바닥 등의 돌봄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분 시설 개보수도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돌봄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은 돌봄공동체 활성화의 필수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어찌보면 지역 사회의 아동 돌봄 공백을 메우는 공공성을 띄는 역할을 우리 같은 돌봄공동체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이 오랜 시간 지내야 하는 공간, 뛰고 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게 화가 날지경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지속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라도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운-4)

부모(회원)들끼리 한푼 한푼 모아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지만 한정된 재정 때문에 임대료 및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돌봄 장소들을 찾아 다니기가 힘들어요. 딱히 맘에 드는 공간도 많지 않고, 모아둔 돈도 부족하고. 돌봄 공간만이라도 시나 도에서 공공기관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맘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2016년부터 벌써 몇 번을 옮겨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6)

우리가 원하는 돌봄 공간 운영은 전기도 쓰고 공간을 유지하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공모 사업에 그건 속 빠지고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비와 재료비만 주고 있죠.. 근데.. 물세 7만원, 전기세 20만원 가까이 나와요..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운-7)

② 돌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역할 확대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체 여러 분야의 사업들 중 돌봄 공동체만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고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돌봄공동체 중심의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과 그 역할 및 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을 매개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보다도 돌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아동 돌봄·양육·교육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정보를 전문 강사로부터의 가르침 받기를 원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을 보다 잘 양육하고 싶은 욕구들이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 돌봄은 부부와 부모의 역할, 부모자녀 관

계 등도 함께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놀이의 다양한 방법,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방법, 엄마의 역할과 부부의 역할 및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고민과 최신 정보들을 전문가를 통해 공유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아동돌봄공동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돌봄공동체 운영·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동체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있는데.. 돌봄을 매개토하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확실히 상이한 특성이 있다고 봐요.. 우선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돌봄 공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 같구요.. 아동돌봄이지만 엄마와 아빠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 교육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들을 봐서 아동 돌봄공동체 운영에 대한 이 쪽 분야만의 전문적 지원 조직이 있으면 좋겠는거예요... (운-1)

영유아 대상 성장 발달, 뇌발달, 특히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런 점들도 육아나 돌봄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고.. 이와 돌봄을 주제로 모인 공동체이니 관심들도 이쪽을 많이 갖고 있는 거구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보다 잘 키울 수 있는지, 양육방법, 훈육방법, 아빠의 놀이방법, 먹이는 것, 아토피, 두뇌발달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은데 엄마들끼리는 아무래도 한정적이니 이 쪽 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한 번씩 교육도 해주고 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운-7)

③ 돌봄의 질 확보 위한 인력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아동 돌봄을 실시하면서 돌봄을 지원해주는 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시·교육청 등에 관련 결과보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외부로의 외출이 있을 시 돌봄의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공동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최근 돌봄공동체 회원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로 자체적으로 보조 인력 운용이 어렵다 보니 노인일자리아사업, 자원봉사센터, 대학교 학생 등 공동체 외부의 지역 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보조 인력의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두 사람이 아이를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서류라든지 행정적인거 기타 사항 등을 두 사람이 맡아주면 대부분 아이들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프로그램 수업이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라도 있어야 (운-5)

엄마들이 당번을 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맡기는데.. 그 엄마들이 시간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을 주위에서 보조로 도와줄 수 있는 주민이나 봉사자가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적은 봉사비용을 주더라도.. 애들 간식 챙기고 점심식사 챙기고 정리하는 시간만이라도.. 누군가가 보조 격으로 함께 해주면.... 아기는 아니라서 아주 위험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1)

아무래도 아이들을 맡는다는 것은 그 시간동안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건데.. 돈 받는다 해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돌발 상황도 많고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격의 누군가가 더 돌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이라도 몇 시간 쓸 수 있다면.. 여러 조건 안 따지고 엄마들에게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더라도 보조니까 좀 완화된 걸로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7)

2) 돌봄공동체 내부 역량강화

① 운영자와 이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면접조사에 참여 했던 돌봄공동체 운영자와 활동가들은 돌봄공동체가 보다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운영자, 활동가, 공동체 회원 대상 다양한 주제의 역량 교육과 컨설팅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공동체 대표이자 주요 운영자들은 공동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회원들은 공동체성과 결속력을 더 다질 수 있는 교육 및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워크숍 등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회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서운함, 미안함, 불편한 마음 등의 다양한 부정적 심리를 서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결속력과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사실 역량이 없어요...대표인 저도 없고.. 회원들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해서 일 년 또 그것에 따라서 서로 역할 구분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올해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도움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서도 컨설팅 받고 싶고.. 활동을 고민할 때도 요청하고 싶고...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도 없이 이 안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힘들어요... (운-2)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편하니까 나이 순서대로... 언니가 회장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나도 회장하고 싶었는데.. 이려고 그러면.. 미묘한 신경전과 같은 갈등, 서운함, 이런 것 걸들이 밖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내적 갈등들이 한 켠 한 켠 쌓이고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털어낸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속 깊게까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성격검사도 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그런 조사도 하고 처음으로 포스트잇 붙여서 쓰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 관리하는 그런 분 초대해서 갈등 풀고 관계 강화시켜주는 심리적, 관계적, 성격검사 같은 것 등을 해서 돈독하게 해주고, 1박2일 워크숍이나 시간 없으면 다른 장소에 가서.. 분위기도 바꿔서 해주면 좋겠어요. (운-3)

② 운영자 경력 인정 및 노고에 대한 보상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 아동의 돌봄 공백을 일부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운영자(대표, 활동가 등)에게 활동에 대한 인증과 노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돌봄 공동체 운영과 활동에 대한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유사 직종으로 전환이나 이직 시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봄공동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교통비, 활동비 등의 최소한의 사례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우가 최소 보장된다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돌봄공동체 운영하라 하면서 운영 주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돌봄처럼 시설이라든가, 운영주체자들의 복지, 그리고 시설 자체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는 혜택임에도...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전무한 상태에서 학교 안에서 돌봄을 다 메우지 못하니 민간인 저희들보고 맞벌이가정 아이들 다 맡기면서.. 교육청이든, 도나 시든.. 맡기지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호체계도 없어요... (운-5)

돌봄공동체 운영 및 활동을 한다고 해서 급여가 나와요? 경력이 쌓여요?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을 하려면 5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돌봄공동체를 운영했다고 경력으로 쌓이지도 않고 인정도 안돼요.. 돌봄공동체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경력이라도 인정해 주면 우리가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쪽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이제까지의 돌봄공동체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인증이 안되어 있으니까.. 난 다시 어딘가에 복지관 같은데 가서 다시 해야 한다는 상황인거예요.. 돌봄공동체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인정, 인증, 결국에는 경력 인증 등으로

쌓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의 노고가 쌓이면 좋겠고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운-7)

공간마련을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월급 안 받아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야 생각하는 거예요... 활동가들이 전혀 월급으로 고민한 적 없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죠.. 지속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만하는게 아니라 지속하고 싶으니까.. 우리 공간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활동 할 수 있는 동력을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까지 없어진거죠... (운-4)

③ 돌봄공동체간 연계망 확대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돌봄공동체들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돌봄공동체들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경험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다른 공동체간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위로와 반성 및 해답 등을 찾아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 내 운영되고 있는 돌봄공동체들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돌봄공동체 모임과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운영중인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정보, 내용의 주요 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가 보다 확대 및 활성화가 되고 지속 가능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돌봄공동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계속 알리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돌봄공동체들간의 모임과 행사, 활동들 그런게 있어야만 되고 (운-2)

몇몇 돌봄공동체들간에 밴드(인터넷 상 모임방)가 있어요.. 전주 마을교육하시는 분들이 밴드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넣고 경험담이나 좋은 프로그램 등을 넣고 공유하면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죠.. 어디 갔다던데 서로 공유도 해주고.. 여기도 가고 올하는 여기도 가보자 이렇게 1년의 공동체 운영 계획안이 짜지지요... 밴드를 하나까.. 정보공유도 있고... 처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유는 서로 소통의 창구가 되더라구요.. 서로 나도 여기 있고 너도 거기 있는..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게 아니다.. 라는 것도 느껴지고.. 고민도 함께해주고 해결 방법이나 노하우도 알려주고.. (운-7)

돌봄공동체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힘과 도움이 되고 또 나도 그러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돌봄공동체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모일 수 있는 장도 있으면 좋겠구요.. 그럼 돌봄 공동체가 보다 활성화 되고.. 지속가능해 질 것 같은데요. 돌봄공동체 운영 과정의 다양한 경험담을 나눌수 있구.. (운-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여 돌봄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전북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대표, 활동가) 8명과 이용자(초등돌봄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 8명인 총 16명

〈표 5〉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활동의 활성화 요인

범주	하위범주	세부주제
돌봄공동체 기반환경 안정화	물리적 기반환경 지원	• 돌봄공동체 지속·운영을 위해 물리적 기반환경과 안정적 지원
	돌봄공동체 공간지원조직 구축 및 역할 확대	• 지자체 공동체 분야 사업 중 아동돌봄공동체 중심의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 형성과 역할 및 기능 확대 • 공간운영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으로 공동체 운영의 조직화·체계화
	돌봄의 질 확보 위한 인력지원	• 돌봄 질 제고를 위해 보조 인력의 안정적 지원 •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맞벌이가구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지원·연계
돌봄공동체 내부 역량강화	운영자와 이용자의 역량강화 위한 교육지원	• 돌봄공동체의 견고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운영자·활동가·이용자 대상 역량교육 지원 • 공동체 구성원간 갈등해결 능력제고 및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 마련
	운영자 경력인정 및 노고에 대한 보상	• 공동체 운영자 사례비 지원·경력인정 등 지역 내 아동돌봄 공백 해소 역할에 대한 인준과 노고에 대한 보상 • 운영자 소진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예방 및 보호장치 역할
	돌봄공동체 간 연계망 확대	•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 공동체 운영정보와 사례 공유, 프로그램 연계 등 공동체 활동 확대 및 활성화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분석결과,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는 돌봄공동체 기본활동 운영을 위한 돌봄공동체 기반환경의 취약과 돌봄공동체의 동력 부족으로 나타났고, 돌봄공동체 활동 활성화 요인으로는 돌봄공동체 기반환경 안정화와 돌봄공동체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상위범주로는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환경의 취약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하위범주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아동돌봄을 위한 돌봄공간 확보 어려움과 확보된 돌봄공간의 지속성·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결과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터전 마련의 시급함(유해미·김문정, 2013)과 품앗이활동의 어려움으로 활동장소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한(차성란, 2010)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다수의 돌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고승희 외, 2019; 김수연, 2019; 조윤정 외, 2016)에서도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돌봄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아동 대상의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시설환경에 대한 적정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핵심인 돌봄공간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 돌봄공간은 안정성·지속성·학교와 집과의 접근성·교통의 편리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돌봄공동체의 조직화와 체계화 부족으로 돌봄공동체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아동돌봄공동체 관련 법적보호와 규정의 부재로 돌봄공동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돌봄에 대한 불안을 제시한 장수정 외(201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장수정 외(2019)는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공동 협력하는 초등돌봄지원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는데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형성부터 운영, 확대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체와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시 구성원 모두가 맞벌이로 공동체 운영과 돌봄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공동체의 공간운영에서부터 아동 급·간식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회계업무처리 등 돌봄공동체 전반의 운영을 소수 1~2인이 도맡아서 운영함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성 돌봄 활동은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과 공급자와 수혜자의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돌봄 생산성 가치에서 당사자의 참여성이 강조된다(김은정, 2015). 아동돌봄공동체 또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구성원들의 주체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로 수혜자 입장에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시 공동체 운영 및 돌봄 관련 보조 인력 수급 방법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돌봄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체성 인식 제고와 참여방안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요인 두 번째 상위범주로는 공동체 활동의 동력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하위 범주로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구성원들의 공동체성 및 공동체의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감소되고 비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자인 주 활동가에게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회계업무 등 과도한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 의지가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활동가들의 소진, 비전 공유의 어려움을 마을교육공동체의 해결과제로 지적한 김위정 외(2016)와 돌봄공동체 구성원의 생각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낸 선행연구(김미란, 2008; 우민정·주봉관, 2011; 이아람, 2015)와 일치하였다. 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 간의 소속감, 다른 공동체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상호영향 관계,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조된다(McMillan & Chavis, 1986). 본 연구결과는 공동체 활동에서 강조되는 이러한 요인들의 부재를 의미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의 부재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하와 해체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동돌봄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공유, 심리적 연대감 등 공공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공모사업의 예산의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공동체에 만족하는 이유로 기초학습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활동 등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는 점을 꼽았다. 공동체 활동이 아이들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켜주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적인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의 첫 번째 상위범주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기반환경의 안정화로 분석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돌봄공동체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돌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결과,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의 중요성을 강조(고승희 외, 2019; 김수연, 2019; 유해미·김문정, 2013) 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는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돌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공

공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이며 돌봄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된 경우 가장 우선 고려되고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 선행연구(전지훈, 2020)를 뒷받침한다. 제주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실태를 연구한 차성란(2018)은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인적으로 자녀돌봄을 하는 공간에서 마을의 돌봄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공동체원들 간의 유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급·간식활동,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등 아동 맞춤 돌봄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이 필수적이며 공동체 공간의 리모델링, 공간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유희공간에 대한 지자체의 연계 등으로 돌봄 공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간 운영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까지 아동돌봄공동체의 전문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아동 발달성장에 맞춘 돌봄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관 기관 간의 연계로 아동 돌봄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역할강화에 대한 선행연구(김수연, 2019; 조윤정 외, 2016)와 일치한다. 특히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전문성,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 각 아동돌봄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 이미영(201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현재 공적 아동돌봄체계의 한계를 채워줄 대안책으로 지역기반 돌봄공동체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지원사업의 확대는 돌봄공동체를 성장시키지만 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물적·인적자원 정보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가능한 기관을 주체기관 중에 지정하고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체 회원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로 구성원 중 안정적인 돌봄 지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인력 지원으로 공동체 운영자의 외부활동에 따른 돌봄 공백과 공모사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돌봄 지원 인력은 돌봄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나 지자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및 지역 대학교 관련 학과 학생의 실습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각 주체기관들과의 MOU를 통해 검증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대한 두 번째 상위 범주로 돌봄공동체 구성원(운영·이용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로는 첫째, 공동체구성원의 역

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가 등 운영자와 공동체 구성원인 이용자 맞춤 교육 실시로 각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해결 및 주기적 소통기회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주민공동체 조직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전지훈, 2020) 협동조합형 공동육아가 기존 보육의 대안으로써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한 선행연구(유해미·김문정, 2013)와 일치한다. 역량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 중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내적특성으로 동기, 특질, 자기개념의 내면역량과 기술과 지식의 표면역량이 있다(Spencer & Spencer, 1993). 박윤혜와 백일순(2021)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체의 차별성으로 기획단계부터의 교육을 필요로 했고,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교육으로 인한 사고의 전환이 실천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나타냈다. 즉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내면 및 표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자의 경력 인정 및 노고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 내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 운영자에 대한 경력 인정과 노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돌봄공동체 운영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과 돌봄공동체 해체를 예방하는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우 공모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강사 인건비 등 지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우므로 활동가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마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김유현(2021)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은 지역 내 아동돌봄공동체 간 연계망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동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공동체 운영에 대한 정보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이미영, 2017)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 및 추진체계 간 협업과 연계가 도모되어야 하며(김미정 외, 2017) 지역 내 부모협동 어린이집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유해미·김문정, 2013)와 일치한다. 그리고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가 단계별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 돌봄공동체와의 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돌봄공동체들 간의 지역 내 연계망이 운영되어야 하고 활동관련 정보 공유, 사례나눔,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공동체 문제와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연계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

역사회에 우수 돌봄공동체 사례를 알리고 공동체와 관련한 주요 의제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을 위한 논의·협의 등이 제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초등학교에 대한 공적 돌봄의 한계와 틈새 돌봄 공백의 대안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주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돌봄공동체 관련 정책 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마련 시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더 낳도록 하는 방식에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 것인가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데(송혜림, 2016)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가 전북지역에서만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국한된 결과를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추가 연구가 요구되며,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 및 이용자 대상 이외 돌봄을 받는 주체인 아동 관점에서의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저해 요인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관련 양적 연구를 통해 활동의 저해 요인과 활성화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기도(2020.12.24).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지침. <http://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5533657&menuId=1547>에서 2021.03. 인출
- 2) 고승희·성태규·최웅선·박춘섭·김진영·김용현·전지훈·이홍택·장창석·홍은일·신혜지·임다정·목소리(2019).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충남형 돌봄체계 구축. 충남연구원.
- 3) 권지성·정익중(2014).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실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3, 5-36.
- 4) 김미란(2008). '육아공동체'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가족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과 경계들. 교육사회학연구, 18(3), 19-60. DOI : 10.32465/ksocio.2008.18.3.002.
- 5) 김미정·백선정·남승연(2018). 마을 중심 보육·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6) 김수연(2019). 경상북도 마을기반 방과후 돌봄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7) 김영천·정상원·조재성(2019).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

섯가지 성공전략. 서울 : (주)아카데미프레스.

- 8) 김유현(202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전남 순천지역 학교시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 10)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희(2019). 초등학교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김위정·김성식·이은정(2016). 자유학기제와 마을교육공동체 연계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12) 김인지·이세인·이숙현(2010).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대 간 양가감정에 관한 질적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5), 73-85.
- 13) 박윤희·백일순(2021).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공간과사회, 31(1), 208-245.
- 14) 보건복지부(2021).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https://dadol.or.kr/biz/biz_intro에서 2021.05. 인출
- 15) 손문금(2012). 서울시 돌봄사업 확대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돌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6) 송혜림(2016).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출산태도와 돌봄지원정책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67-93.
- 17) 여성가족부(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18) 여성가족부(2020).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부.
- 19)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II). 여성가족부.
- 20) 연합뉴스(2020.09.15).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돌봄 공백...맛벌이 부부 절반 퇴사 고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57200063>에서 2021.05. 인출
- 21) 오범호(2009).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정책효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22) 우민정·주봉관(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과정에서 겪는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3), 147-168.
- 23) 우삼제(2011).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유해미·김문정(2013).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포럼, 37, 20-31.
- 25) 이미영(2017). 광주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26) 이아람(2015). 품앗이 육아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과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이연화(2017).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8) 이정빈(2018).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 학지사.
- 29) 이종근(2021). 초등돌봄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대구광역시 도십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익산시(2021).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가이드라인. https://www.iksan.go.kr/budget/board/view.iksan?boardId=BBS_BUDG_PUBL&menuCd=DOM_000000904001000000&startPage=1&dataSid=740417에서 2021.05. 인출
- 31) 임혜정(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영향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DOI : 10.15709/hswr.2017.37.4.510.
- 32) 장수정 · 송다영 · 백경훈(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DOI : 10.47042/ACSW.2019.02.62.251.
- 33) 전라북도교육청(2020.01.30).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함께 만들어가는 2020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안). https://www.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01050010010000&boardId=BBS_0000205&dataSid=356215에서 2021.03. 인출
- 34) 전라남도교육청(2021.04.28). 2021 전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안). <https://www.jne.go.kr/viledu/na/ntt/selectNttInfo.do?mi=734&nttSn=5017120>에서 2021.05. 인출
- 35) 전지훈(2020).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 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8), 297-339.
- 36) 정영모(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복지동향, (252), 13-18.
- 37) 정영태(2019). 대구지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38)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1.04). 수놓음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에서 2021.05. 인출
- 39) 조윤정 · 이병곤 · 김경미 · 목정연(2016).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40) 진미정(2018.10.08). 가족과 공동체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dxno=25315>에서 2021.03. 인출
- 41) 차성관(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품앗이 사업 실천 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189-201.
- 42) 차성관(2014). 가족돌봄기능과 관련된 세대갈등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111-133.
- 43) 차성관(2018). 제주 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1-24.
- 44)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
- 4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 사례 워크숍.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6) 한국은행(2018.03.18).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5호.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236370&menuNo=200431>에서 2021.05. 인출
- 47) 홍세영(201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노동 돌봄의 의미와 특성. 노인복지연구, 51.
- 48) 홍순구 · 한세억 · 이현미(2014). 지역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Co-creation 접근.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1), 1-24.
- 49) Daly, M.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 50)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51) Sipila, J. & Kroger, T. (2004). European families stretched between the demands of work and care. Editorial introductio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6), 557-564.
- 52)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Canada : John Wiley & Sons, Inc.

- 투 고 일 : 2021년 06월 11일
- 심 사 일 : 2021년 07월 03일
- 계 재 확 정 일 : 2021년 08월 02일